

“예배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열왕기상 3:1-15

새해 우리교회 표어를 예배승리 인생승리 예배회복 인생회복으로 정했습니다. 현대교회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서 최상이란 말인데 우리들에게 있는 찌꺼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찌꺼기 시간, 찌꺼기 헌금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 계시록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은 다른 어떤 말보다도 예배의 중요성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계시록은 온통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끝납니다. 예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설혹 잃는 일이 있다고 해도 예배 만큼은 반드시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실제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갖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부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그의 백성들은 듣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은 예배 중심의 삶과 새벽기도입니다.

먼저 우리도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으로 조정될 때 우리 인생도 승리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구원 받은 성도의 삶은 예배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계획 중에서도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예배로 시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있습니다. 아벨의 성공요인도 예배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노아도 홍수가 끝나자 마자 가장 먼저 한일은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새로운 거처가 생길 때 마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의 시조 청교도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예배 드리기 위해 신대륙으로 건너오게 되었고 그곳에 정착하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예배하는 민족이나 가정은 항상 승승장구합니다

둘째가 새벽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새벽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훈련시켜 밤 문화에 젖어 있던 노예의 근성을 새벽체질로 바꾸셨

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도 세상문화인 밤 문화에서 새벽체질로 바뀌어야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밤에는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밤이 늦도록 잠을 자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치고 병 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함께 새벽기도에 나오는 부부 치고 금슬이 나쁜 부부는 없습니다. 싸워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의 우선순위를 새벽기도에 두신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막 1:35)

우리는 더 큰 성장을 위해 자기에 갇혀 있는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미 습관화 되어있는 과거와 현재의 틀을 바꾸는 일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신앙 교육이라는 것도 틀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생각의 틀, 행동의 틀, 판단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속의 행동 유형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유형으로 바뀌는 것, 실패하는 체질에서 승리는 체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뀝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통해 우리의 행동의 틀이 바뀝니다. 또한 새벽예배를 통해 교제권이 바뀝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입니다. 새벽을 주님을 만나는 사람, 새벽예배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입니다. 새벽을 깨우셔서 역사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예배는 지속적인 예배였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왕상 3:3) 솔로몬은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고 했다고 할 때 히브리어 동사를 보니 ‘계속해서 분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된 뒤에 한번 만 주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왕상 3:4) 솔로몬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기도와 예배에 전념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 힘이나 머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힘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따라 지지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항상 교회가 먼저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비로소 자신의 왕국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하며 하나님께 먼저 굴복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난 뒤에 그 마음을 즉 자기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들에게 열심이 없거나 열정이 없어서 라기보다는 우선 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성경은 최고 우선순위를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4:23)**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실마리는 예배로부터 풀어나가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나머지 모든 것에도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이 됩니다. 꾸준히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 시험을 이기고 열매를 거두는 성도의 삶의 비결은 바로 예배의 승리입니다.

예배승리 인생승리, 예배회복 인생회복인 이유

우리의 인생 앞에 길이 열리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겪게 됩니다. 가는 길에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취업이 문이 닫혀 있는 사람, 사업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 젊은이들은 결혼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 이럴 때 우리는 답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닫힌 문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은 견고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은 어디서 나오는 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강력히 일하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고후 10:4)**

예배는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솔로몬은 어떤 의미에서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적통혈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밋세바와 간음하여 불륜으로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솔로몬보다 나이가 많은 겔출한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명령했습니다. 솔로몬이 평범한 왕에서 위대한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후였습니다. 솔로몬은 예배에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일천번제란 천마리의 양을 통체로 남김없이불에 태워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번제란 말은 완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남김없이 다 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솔로몬 같이 번제를 드릴려면 자신이 가진 가장 고귀한 것을 예물로 드릴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최상을 드려야 한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든지 최상이어야 합니다. 시간을 드릴때도 최상을 자식을 드릴때도 최상으로 드려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의지혜를 받는 복을 누렸습니다. 무슨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일순위로 두고 사는 것을 번제정신이라고 한다. 우리 모두가 이런 번제정신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진다

솔로몬은 예배승리할때는 인생을 승리했지만 예배가 무너지면서 인생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출발하여 풍성한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받았지만 말년에 타락에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은혜 받고 타락한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예배 잘 드려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말년에 이방신을 섬기는 부인들로 인해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일천명의 처첩의 소리로 인해 하나님의 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사람 어떤 일에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것이 TV 라면 끊어야 한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경청하는 것이 있으면 단절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방여인들의 소리로 인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설때만이 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좋은 학교에 보낸다고 주일날 교회에도 안 대려 오는 가정보라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도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가정이 평탄치 않고 믿음이 단절되버린다. 신앙을 전수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죄입니다. 믿는 가정에 태어난 자식을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불순종은 이런 일을 낳습니다. 솔로몬은 예배 잘 드려 당대에는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자식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나눔의 시간

1. 2019 년도 '예배 승리, 인생 승리! 예배 회복, 인생 회복' 하기를 서로 응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린 예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다면 서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 하기 위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2. 예배를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 삼아야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배'가 나의 우선순위에 몇번째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혹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서로 나눠 주시고 이를 방지 하기 위해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